

라오스 야구대표팀 “광주일고에 한 수 배우고 갑니다”



광주일고 선수들과 라오스 국가대표팀 '라오J브라더스' 선수들이 2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KIA 서동욱 코치가 지켜보는 가운데 수비 훈련을 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대한체육회 개도국 선수 초청 훈련...이만수 전 SK 감독 단장으로 방문 광주일고와 연습경기 0-9 패...KIA 앤서니·서동욱 코치 일일 지도자 활동

“즐겁게 잘 배우고 돌아갑니다.”
2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그라운드에서 특별한 선수들이 자리를 했다. 이날 챔피언스필드에서는 광주일고 선수들과 라오스 야구 국가대표팀 '라오J브라더스'의 연습 경기가 진행됐다.
〈관련 기사 22면〉
‘헬프’ 이만수 전 SK 감독을 단장으로 한 라오스 대표팀은 지난 21일 한국을 찾았다. 대한체육회의 '2019 개도국 선수 초청 합동훈련'의 일환으로 한국을 찾은 이들은 광주를 훈련지로 삼았다. 그리고 광주일고 선수들과 동료가 되어 함께 훈련하며 야구 기를 기웠다.
라오스 선수들은 광주일고 야구장, 무등경기장에

이어 29일에는 챔피언스 필드를 찾아 훈련을 했다. 아직 야구장조차 없는 라오스에서 온 선수들은 프로 선수들이 뛰는 경기장을 둘러본 뒤, 광주일고 선수들과 한데 어울려 평고를 받는 등 합동 훈련을 했다. ‘역대급 경기장’에서 훈련한 선수들은 놀라움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내 즐겁고 진지하게 훈련에 임했다.
이날 마무리캠프 선수단의 휴식 날이었지만 KIA도 코치를 파견해 라오스 대표팀을 반겼다. 앤서니 투수 코치와 선수에서 지도자로 변신한 서동욱 타격 코치가 라오스 선수들의 훈련을 지켜보면서 일일 코치로 역할을 해왔다.
함께 훈련하던 선수들은 이내 적이 되어 경쟁의

시간을 보냈다. 연습경기가 진행되면서 라오스 선수들은 앞서 같고 뒤는 실력을 선보였다.
당초 경기는 5회까지만 진행될 예정이었다. 여권 발급 문제 등으로 주축 선수 몇 명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지 못하면서, 18명으로만 선수단이 꾸려진 탓이다. 하지만 초 공격에 나선던 라오스 선수들의 요청에 따라 경기는 7회초까지 진행됐다.
KIA 타이거즈 입단을 앞둔 광주일고 에이스 정해영이 출격한 경기는 9-0, 광주일고의 대승으로 끝났다. 하지만 라오스 선수들은 꿈의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로 박수를 받았다.
이 경기를 끝으로 라오스 선수들은 한국에서의 야구 일정을 마무리했다. 야구로 통했던 두 팀의 선수들은 진한 아쉬움 속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석별의 정을 나눴다.
처음에는 말도 통하지 않고 서먹서먹 낯설기도 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임원들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제인내 라오스 야구연맹 사무총장은 “날씨가 추워져서 걱정을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점퍼를 맞춰주셨다. 라오스에서는 야구 장비를 구하려면 남쪽으로 760km 떨어진 태국 방콕까지 가야 한다(웃음)”며 “광주일고 선수들이 자세, 실력, 예의범절 등을 다 보여주었다. 라오스 야구의 3~4년을 당겨준 것 같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광주일고 성영재 감독은 광주일고 선수들도 많은 걸 배운 시간이었다고 돌아왔다.
성 감독은 “우리 선수들은 물론 나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었다. 우리보다 실력은 부족하지만 정말 열심히 했다. 우리 선수들에게도 좋은 자국이 된 것 같다”며 “말은 통하지 않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우리 선수들도 도와주려고 하고 좋은 시간이 된 것 같다. 애들끼리 말은 안 통해도 손짓, 발짓 섞이면서 정말 친해졌다. 좋은 시간이 됐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몸 값 낮춰라 다저스에 남고 싶다면” MLB닷컴 FA 연봉 협상 예측

미국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류현진(32)이 원소속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 잔류하길 원한다면 약간 손해를 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MLB닷컴은 29일 “류현진, 시장에서 가치 평가 받는다”는 기사에서 “류현진은 올 시즌 14승 5패 평균자책점 2.32를 기록하며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후보로 꼽히고 있다”며 “올해 스포츠비즈니스 최다에 중한 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많은 팀은 좌완 선발 류현진의 영입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현재 FA 시장 분위기를 알렸다.
이 매체는 상대적으로 원소속팀 다저스보다 다른 팀들이 많은 금액의 계약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류현진은 적지 않은 나이의 투수인 데다 부상 이력이 많기 때문에 빅마켓 구단인 다저스가 더욱 확실하고 강한 투수 영입에 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매체는 “류현진은 로스앤젤레스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데, 만약 다저스에 남길 원한다면 계약 조건에서 약간의 손해를 봐야 한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MLB닷컴은 류현진이 손해를 감수할 가능성은 적다고도 전망했다.
류현진의 에이전트가 ‘슈퍼 에이전트’ 스티브 보라스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리틀 태극전사들 프랑스 넘고 16강 가자~

‘U-17 월드컵’ 내일 조별리그 2차전...佛 아우치체 경계 대상 김정수號 ‘체력·경고 관리’ 관건...엄지성·최민서 활약 기대

2019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월드컵 첫 경기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둔 한국대표팀이 프랑스 사냥에 나선다.
김정수 감독이 이끄는 한국 U-17 대표팀은 31일 새벽 5시 브라질 고아니아의 세하나 경기장에서 프랑스와 대회 조별리그 C조 2차전을 치른다.
지난 2001년 U-17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프랑스는 전력상 한 수위로 평가되고 있다. 기록 상으로도 열세다. 한국은 프랑스 U-17 대표팀과 지난 2005년, 2009년 두번 만나 모두 패했다. 2005년 3월 첫 대결에서 0-3으로 패했고, 2009년 9월 다시 만나 0-1로 졌다.
프랑스는 탄탄한 수비력을 갖춘데다 공격과 미드필더 진에는 한방이 있는 선수들도 보유하고 있다.
아틸 아우치체(파리생제르망)와 루시앙 아구메(인테르밀란), 낭주랑기 쿠아시(파리생제르망)가 주요 경쟁대상이다.
등번호 10번 아틸 아우치체(파리생제르망)를 조심해야 한다.
아우치체는 지난 5월 치러진 2019 UEFA(유럽축구연맹) U-17 유로예선에서 2선 공격형 미드필더로 5경기 출전해 무려 9골을 쏟아내며 득점왕에 올랐다. 아우치체가 터트린 9골은 역대 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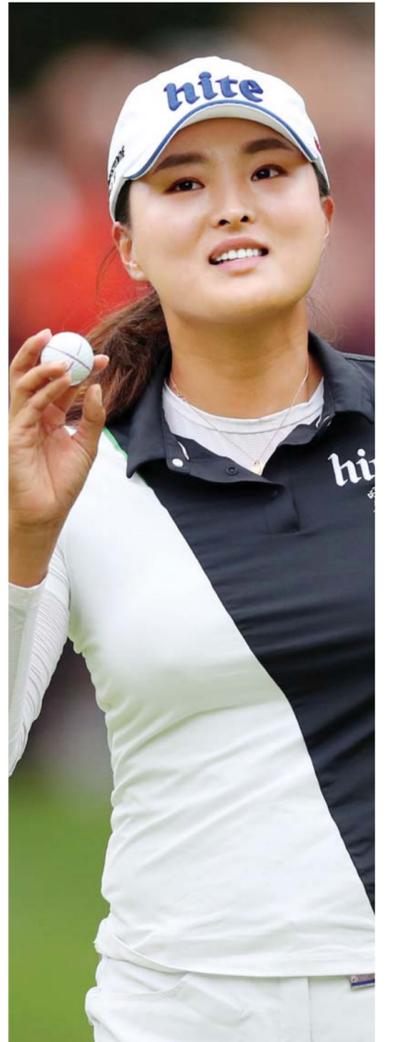
-17 유로 대회 통산 한 대회 최다골 기록이다. 아우치체는 지난 칠레와 1차전에서도 도움 1개를 기록했다. 그는 지난 8월 프랑스 리그1 FC메츠와 파리 생제르망 경기에서 만17세 1개월 15일의 나이로 1군 무대에 데뷔했다. 그는 유럽 축구의 큰 손인 파리생제르망이 애지중지하는 톱 유망주다.
몸싸움에 능하고 양발 패스 능력을 가진 중앙 미드필더 루시앙 아구메는 축구팬들 사이에서 ‘뉴 포그바’로 불린다. 프랑스 중앙수비를 책임지고 있는 낭주랑기 쿠아시도 프랑스에서는 ‘넥스트 블랑’으로 불리고 있는 차세대 기대주다.
김정수호의 프랑스전 승리의 관건은 체력회복과 퇴장당한 이태석의 공백메우기다.
한국 대표팀은 지난 아이티전에서 손쉽게 승리할 수 있었으나 측면 수비수 이태석의 경고누적 퇴장으로 힘겨운 경기를 펼쳤다. 이태석은 3차전인 칠레전까지 결정한다
또 팀의 주축인 김륜성(포항제철)과 문준호(충남기계공고)가 지난 경기에서 옐로카드 1개씩을 받아 경고 관리가 필요하다. 두 선수는 프랑스전에서 옐로카드를 받을 경우 아이티전에서 퇴장당한 이태석과 함께 3차전인 칠레전에 결장



아이티전에서 골을 넣은 최민서가 훈련 중 잠시 쉬고 있다. /연합뉴스
하게 된다. 대표팀의 16강행의 분수령이 되는 칠레전은 대표팀의 명운이 달려 있어 프랑스전 세심한 경고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은 아이티전에서 행운의 프리킥 선제골을 넣은 엄지성(금호고 2년)과 추가골을 넣은 공격수 최민서로 맞대응 할 전망이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300만달러의 여왕’ 도전

고진영 내일부터 ‘대만 LPGA’ 출전



부산에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올해의 선수’를 확정된 고진영(24)이 대만에서 ‘상금 300만달러 돌파’에 도전한다.
세계랭킹 1위 고진영은 31일부터 나흘간 대만 뉴타이베이 시티의 미라마 골프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리는 ‘타이완 스윙잉 스키즈 LPGA’에 출전한다.
올해 9회째를 맞는 타이완 스윙잉 스키즈의 총상금은 220만달러(약 25억7500만원)로, 중국-한국-대만-일본을 무대로 하는 LPGA 투어 ‘아시아 스윙’ 대회 중 가장 많다. 우승 상금은 33만달러(약 3억8600만원).
고진영은 시즌 상금 271만4281달러로 이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다. 타이완 스윙잉 스키즈에서 우승한다면 시즌 상금 300만달러를 넘긴다.
LPGA 투어에서 시즌 상금 300만달러를 돌파한 선수는 2007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이후 없었다. 고진영은 12년 만의 기록에 도전한다.
고진영은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좋은 기운을 받고 대만으로 이동하는 고진영이 또 다른 이정표를 남길지 주목된다.
고진영 외에도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선전한 한국 선수들이 대거 타이완 스윙잉 스키즈 LPGA로 무대를 옮긴다.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을 단독 3위로 마친 양희영(30)과 공동 4위를 차지한 전인지(25), 고진영과 함께 공동 9위를 기록한 김세영(26)이 여세 물いに 나선다.
신인왕을 확정된 이정은(23)도 출격한다. 상금 2위(196만998달러)를 달리는 이정은은 고진영의 상금왕 경쟁자다.
올 시즌 LPGA 투어는 타이완 스윙잉 스키즈 LPGA와 토트 저팬 클래식(총상금 150만달러),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500만달러)을 끝으로 막을 내리기 때문에 막판 상금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달 초 불런티어스 오브 아메리카 클래식을 끝으로 LPGA 투어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던 박민비(31)와 박성현(26)도 재정비를 마치고 우승 사냥에 나선다.
/연합뉴스